

청 렬 포 차

S y n o p s i s

1 기획의도

- 하나의 청렴수기 내용을 그대로 연극화 한 것이 아닌 포장마차라는 배경과 김사장이라는 중재자를 중심으로 청렴수기사연 주인공 3명의 대화와 각각의 사연을 유쾌한 연극으로 풀어냈다. 신선한 포맷을 통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 사연을 관객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2 줄거리

- 늦은 밤, 저마다의 청렴사연을 가지고 있는 문복례(60대 여성), 김성준(40대 남성), 김관주(20대 남성)는 우연히 지나던 길에 있는 청렴포차라는 간판으로 보고 자신들의 소중한 기억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청렴포차의 김사장의 능청스러운 행동에 의해 우연히 한 테이블에 합석을 하게 되고 서로 같은 이유로 청렴포차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김사장이 이끄는 대화 중 각자가 겪은 청렴한 사연들을 이야기한다.

3 등장인물

- 김사장 : 청렴포차의 주인. 특유의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일면식이 없는 세명의 손님을 합석하게하고 능청스러운 행동을 통해 각각의 사연을 이끌어낸다.
- 문복례 :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 사례의 주인공으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 청렴포차를 방문한 날이 명예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한 독특한 사연이 있다
- 김성준 : ‘바나나 우유와 군밤 세 개’ 사례의 주인공으로 코레일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과묵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따듯한 사람이다.
- 김관주 : ‘청렴보신탕’ 사례의 주인공으로 낮을 많이 가리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기 타 : 노인.어린이(김성준의 회상 씬에 등장), 관광객, 당숙이모(김관주의 회상 씬에 등장) 오대리,김대리,오과장,사장님(문복례의 회상 씬에 등장)

#1. 청렴포차 안

bgm - 혼술남녀 테마곡 (나와 Inst.)

[무대 위 4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가운데 테이블엔 커다란 뚜껑에 덮인 무언가가 있고 주위를 둘러싼 3개의 테이블엔 60대 여성, 40대 남성, 20대 중반의 청년이 앉아있다. 모두 좋은 일이 있는지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데도 밝은 표정으로 기쁜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고 그들 위로, '청렴포차' 라 쓰여진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다.]

bgm - 바쁘 바빠 발자국 소리

[잠시 후 바쁘게 뛰는 듯한 발소리가 정적을 깨며 좌측에 있던 커튼을 열고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등장한다]

김사장 : (커튼을 강하게 치고 앞으로 나와 앞치마를 소리나게 펼쳐 입으며) 어서옵쇼!! 청렴포차의 김사장입니다!

(김사장의 커다란 인사에도 3명은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아무런 대답은 없다)

김사장 : (잠시 두리번거리면서 테이블을 확인 한 뒤 사람 수를 세아리며 말한다)어! 세분 다 따로 오셨나요? 요즘 아무리 혼술이 대세라지만 손님들이 다 혼자 술 드시러 오시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하하하!!

(김사장의 호쾌한 웃음에도 3명은 피식 미소만 지을 뿐 들려오는 대답은 없다)

김사장 : 하하하.. 거 참..(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며) 그럼 다들 안주는 어떤 걸로...??

(김사장의 질문에 세 사람은 눈치를 보다 동시에 대답한다)

문복례, 김성중, 김관주 : 계란말이요!

(아무 대답이 없던 3명이 동시에 대답하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던 김사장은 주문한 메뉴가 계란말이라는 것에 무언가 공공이가 있는지 입꼬리를 살며시 올리고 비어있는 가운데 테이블로 걸어가며 말한다)

김사장 : 저희 가게가 계란말이 잘하는건 어떻게 아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갑자기 가운데 테이블의 커다란 뚜껑을 들어올리며 큰 목소리로)자 여기 준비됐습니다! (곤란하다는 듯이) 그런데 이거 어찌나.. 저희는 3인분부터 주문이 되는데..

(김사장의 능청스러운 행동에도 3명은 아직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눈치를 보고 있다. 들려오는 대답이 없자 김사장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김사장 : ㅎㅎ!! 이정도 했으면 딱딱한 분위기 풀어질 법도 한데 에휴... 자자 손님들 사실 오늘 계란도 다 떨어지고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계란말이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김사장의 말에 3명은 눈치를 보더니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려고 한다. 그러자 김사장은 급하게 세사람을 앉히며 말한다)

김사장 : (답답한 듯) 아니!! 아 오늘 손님들 어렵네 어려워!! 짹 막혔어 정말!! (박수 두 번을 치며) 자자!! 제 말은, 다들 혼자 오셨고 준비된 안주도 하나고 하니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드시자 이 말씀이죠!! (강제로 손님들을 자리에 앉히려 하며) 제가 딱 들어와서 보니 뭐 다들 밝은 표정에 좋은 일만 있으신거 같은데 그런 일은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해야 더 기분 좋고 그런거예요! (가운데 테이블에 앉고 테이블을 두 번 두드리며) 탁탁!! 그러니까 어서들 앉으세요!!

(김사장의 능청스러운 행동에 다들 웃으며 서로를 보다 김성중이 먼저 말을 한다)

김성중 : 사장님이 저렇게 까지 하시는데 초면에 죄송하지만 합석 좀 하겠습니다.

김관주 : (소심하게)저도 실례 좀 하겠습니다.

문복례 :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저도 좀..

(김성중이 가운데 테이블에 앉자 김관주와 문복례도 자리에 가운데 테이블에 앉는다)

김사장 : (밝게 웃으며)어차피 합석 하실거 빨리 앉으시면 어디 덧나십니까!(술 한병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탁!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데 다들 혼술 하러 오셨어요? (흥미로워하며)술술 얘기하면 술은 그냥 드립니다! 자자, 다들 얘기 좀 꺼내 봐요!

(김사장의 질문에 다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밝은 표정이고 김성중이 먼저 대답한다)

김성중 : 뭐 대단한 일이 있던 것은 아닌데...

김사장 : (꼬치꼬치 문듯이) 어! 뭔데요 무슨일인데요!! 말씀 좀 해보세용~~

김성중 : (못당하겠다는 듯이 고개 저으며)거 사람 참..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이집 간판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거 아닌가.. 청렴포차... (무언가 회상하듯이) 간판을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한번 들어와 봤네.

문복례 : (아저씨의 말에 뜨끔한 듯이) 어... 저도 같은 경우인데..

김관주 : 저도요!

김사장 : (놀라워하고 박수를치며) 짹! 이런 우연이 있나!(술을 한잔씩 따르며)자자 일단 한잔씩 받으시고(한잔씩 술을 따른 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잔씩 마시자고요!! 짹!!

(아직도 어색한지 머뭇거리는 손님들의 잔에 일일이 잔을 맞댄 후 김사장 혼자 술을 마신 뒤)

김사장 : 카~~ 좋다 가만 우리집 간판이 빛나서 오셨다라!(테이블에 턱을 기대고) 청렴포차라... 청렴포차... 청렴... 청렴!!(무언가 생각이 난 듯, 핑거 클랩 후) 아!! 청렴과 관련된 일이구만!

(김사장의 말에 다들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잔을 마시는데 김사장이 말한다)

김사장 : 이거 이거!! 이분들 청렴을 위반해서 뒤통 좀 거하게 받으셨!!(문복례와 김관주가 놀라서 마시던 술을 김사장에게 뿜는다) 예헤이!!

김성중 : (먹던 잔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놓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는 투로)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김사장 :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농담입니다 농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편하게 해 드릴려고 한건데.. 다들 얼굴에 청렴하다고 써있는데 미쳤다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김성중 : (김사장의 억울하다는 표정에 눈을 피하며)끄음.. 거 사람이 할 농담이 있고 아닌게 있지 음..

(문복례와 김관주도 김성중의 말에 동조하듯)

문복례 : 그래, 이견 사장님이 너무했어.

김관주 :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사장 : (3명이 서로 편을 들어주며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자 웃으며) 이거이거 초면인분들이 편들고 저 따돌리는거예요? 그런거예요?? (모두들 들으란 듯이 크게 소리치며) 동네사람들!! 이 사람들 좀 봐요!!!

(김사장의 행동에 다들 웃는다)

김사장 : 다들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술을 한잔씩 따르며) 그런데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으셨던거예요? 뭐 청렴한 행동? 그런거 하신거죠?

김성중 : (쑥스러워하며) 뭐 그런셈이긴 한데.. 크흠...

김사장 : 에이 뭘 그렇게 쑥스러워 하세요 청렴한게 뭐가 부끄러운거라고 (문복례와 김관주에게

동조를 구하듯이) 안그래요?

문복례 : 그래요, 아저씨.

김관주 : 저도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중 : (다들 보채자 헛기침을 한 뒤) 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저는 지금 코레일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에 있던 일인데...

#2. 열차 안(김성중 회상 씬)

bgm - 띠로링소리

(가운데 조명이 어두워 지고 오른쪽 공간의 불이 밝아진다)

bgm - 열차효과음

(열차 내부인 것을 알리듯이 열차효과음이 들리고 객차 사이 화장실이 있는 공간에 한 노인과 그 옆에 노인의 다리를 잡은 어린아이가 무언가 불만에 가득찬 표정으로 붙어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옆 칸에서 승무원(김성중)이 들어온다)

김성중 : 고객님 승차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노 인 : (승차권을 보여주며) 여기...

김성중 : (승차권을 확인한 뒤) 네 부산까지 가시네요. (승차권을 돌려드린 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승차권을 확인한 뒤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승무원(김성중)을 보며 노인은 망설이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승무원(김성중)을 잡는다)

노 인 : 저...

김성중 : 무슨 일 있으신가요?

노 인 : 그제...(망설이다 주머니를 뒤지더니 무언가를 승무원의 손에 쥐어준 뒤) 저 이거..

김성중 : (손에 쥐어준 것을 본 뒤) 5천원권은 왜 주시는 건가요?

노 인 : 그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 하나만 좀 안되겠습니까?

김성중 : (승무원은 5천원을 노인에게 드리며) 아 어르신 이런거 주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노 인 : (무언가 잔뜩 들어있는 짐을 뒤적이며) 아 내가 돈은 더 없고 다른거 더 드릴테니까..

김성중 : (노인을 말리며) 아니 어르신 뭘 더 주셔서 되는게 아니라 지금은 명절이라 좌석을 구하기 힘들어요 만약 있다고 해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좌석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 마시고 조심하셔서 가세요.

(승무원(김성중)이 말을 마친 뒤 다시금 옆 칸으로 이동하려 할 때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한다)

아이 : 할아버지 나 앉아서 갈래 힘들단 말이야 할아버지 괜히 따라왔어 으아앙!!

(노인은 우는 아이를 달래고 승무원(김성중)은 그런 둘을 바라본다. 잠시 후 어두워지고 청렴포차의 불이 밝아진다)

#3. 청렴포차 안

bgm - 띠로링소리

김사장 : 아니 할아버지가 왜 돈을 주시려고 하는거예요?

김성중 : 저도 궁금해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예전에는 명절에 좌석을 끊으려고 뒷돈을 주고 했었나봐요 어르신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신거겠지..

김관주 :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성중 : 무언가를 받고 좌석을 끊어 드리면 청렴에 위반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마음 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승무원이 쓰는 객차 내 방송실 칸이 있는데 그곳으로 안내해서 앉아 갈 수 있도록 해드렸지요.

문복례 : (정말 잘했다는 듯이)아이고.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김사장과 김관주도 동조하듯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인다)

김성중 : (뿌듯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때 부산에 도착하고 방송실로 가보니 이미 내리셨는지 어르신과 아이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 대신 그 자리에 편지와 바나나우유 군밤 세개가 있었죠. 편지는 뭐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뿌듯하더라고요. 하하 참 나도 주책이지..

김사장 : (김성중의 잔을 따라드리며) 주책은 무슨! 정말 좋은일 하셨네. 좋은일 하셨어! 이야 이 아저씨 부패하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청렴도 지키고 좋은 일도 하시고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네?

김성중 :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하하하 그건 그렇고 다른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김사장 : (문복례와 김관주의 잔을 따라주며)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은 무슨 일이 있으셨던거예요?

(문복례와 김관주가 동시에 대답한다)

문복례, 김관주 : 저는...

(동시에 대답한 문복례와 김관주가 서로를 바라보며 먼저 하시라는 눈빛을 보내자 김사장이 별떡 일어나며)

김사장 : 자자!! 서로 미루시니까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죠! 술자리에 게임이 빠질 수 없죠??
제가 또 술자리 게임 잘 알죠 이번 게임은..

김관주 : (김사장의 말을 재빨리 끊으며)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자신의 말을 끊으며 순서를 정하자 김사장은 머쓱하게 앉으며 말한다)

김사장 : 그래! 젊은 사람이 먼저해야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관주 : (벅차오르는 표정으로)저는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규직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김사장 : (폭죽을 터트리며) 이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을 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문복례 : 어머니 축하드려요

김성중 : 정말 잘됐네요

김관주 : (쓱스러운 듯) 하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제 고향인 보길도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자연환경안내원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하던 날..

#4. 다도해해상국립공원(김관주 회상 씬)

bgm - 띠로링소리

(청렴포차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오른쪽 공간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진다)

bgm - 파도치는 소리 및 새 울음소리 (잠시 후 김관주와 관광객이 등장한다)

김관주 : (관객석을 가르키며)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섬이 다도해국립공원의 명소 중의 하나인 보길도입니다.

관광객 : (감탄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와~~

김관주 :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저 섬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바야흐로 때는 1352년....

관광객 : (청년의 설명을 듣다가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까아악!!!!

김관주 : (화들짝 놀라며)헉! 깜작이야 왜 그러세요??

관광객 : (정면의 바닥을 가르키며) 저..저기...

김관주 : (관광객이 가르키는 쪽을 돌아보면서) 저기 뭐가 있는데 그렇게 놀..?(커다란 구렁이를 발견하고는 바닥에 자지러지며) 아우 씨 뭐야 이거!!!

관광객 : (바닥에 엎어진 청년의 등을 때리며) 저것 좀 어떻게 해봐요!!

김관주 : (관광객의 다그침에 마지못해) 알았어요... (관광객이 뒤에서 밀자) 밀지마세요 쫘!!

bgm - 영화 '쇼스'의 긴장되는 음악

(김관주는 질색하는 표정과 함께 들고 있는 산악용 지팡이를 구렁이 쪽으로 서서히 들이댄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지팡이가 구렁이 쪽에 가까워질수록 bgm은 점점 빨리진다. 지팡이가 구렁이 쪽에 거의 접근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청년을 부른다)

당 속 : (큰 목소리로) 아따 마 관주 아이가?

김관주, 관광객 : (깜짝놀라며) 으악!!!!

김관주 : (누구인지 확인하고)하.... 당숙!! 여긴 무슨 일이세요?

당 속 : 우리 행님 집이 여기 아이가! 근디 뭘일이고?

김관주 :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삼촌 저기 앞에 있는 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삼 촌 : 뭘디? (정면을 바라보다 구렁이를 발견하고) 배..배배배..뱀???

MR - 참아주세요(뱀이다)

(김관주와 관광객은 당숙 역시 놀라자 한숨을 쉰다. 이때 뱀이다 MR이 나오고 당숙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한다)

당 속 : (구렁이 쪽으로 신나게 접근하며)구렁이다~ 구렁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구렁이다~ 구렁이다~ 요놈의 구렁이를 사로잡아 (노래는 점점 작아지고 구렁이를 어깨에 둘러 맨 당숙은 퇴장)

(김관주와 관광객이 얼빠진 표정으로 당숙이 퇴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조명이 어두워진다)

#5. 청렴포차 안

bgm - 띠로링소리 (청렴포차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김사장 : (배를 부여잡고 웃으며) ㅋㅋㅋㅋ... 아니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겨우 구령이 따위한테 기죽어서 되겠어?

김관주 :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겨우 구령이라뇨 (과장된 행동으로) 아나콘다인줄 알았다니까요!!

김성중 :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구령이는 멸종야생동물로 알고 있는데.....

김관주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듯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가이드를 마치고 막상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령이가 멸종야생동물 1급 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문복례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관주 : 다음 날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구령이를 놓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위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가지고 당숙 댁을 찾아 갔어요. 그런데..

#6. 당숙 댁 (김관주 회상 씬)

bgm - 띠로링소리

(청렴포차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오른쪽 공간의 조명이 밝아진다. 당숙은 마당을 쓸고 있고 이 때 김관주가 머뭇거리며 들어온다)

김관주 : 당숙 (머리를 굽적이며) 저... 드릴말씀이 있는데...

당 숙 : (기분이 좋은 듯 신나게 빗자루질을 하며) 뭐꼬?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손가락을 튕기며) 맞다 관주야 그 구령이 덕분에 내 호강하게 생겼다 아이가

김관주 : (당숙의 손에 편지를 전해주고 조심스럽게 묻는다)저 일단.. 이거. 혹시... 그거...

당 숙 : (김관주의 어깨를 툭건드리며)아 자숙 답답하게 퍼뜩 말해보레이.

김관주 :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그 구, 구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 숙 : 아~ 구령이? 느그 이모한테 맡겼다 아이가(부인을 찾으며) 마 어딴노 퍼뜩 나온다

(당숙의 부인이 나오는 동시에 MR이 흘러 나온다)

MR - 영감타령

(당숙과 그의 부인이 익살스러운 행동과 함께 노래를 한다)

당 속 : 부인~~

부 인 : 왜 불러~

당 속 : 어제 밤 가지고 온 구렁이 한 마리 보았나

부 인 : 보았쥬

당 속 : 어쨌슈

부 인 : 허리 아픈 우리 남편 몸보신 하라고 놓았지

당 속 :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마누라지

(영감타령 MR이 끝나면 당숙과 부인은 좋아하고 있는데 김관주가 산통을 깨는 말을 한다)

김관주 : 저... 당숙 정말 죄송한데.. 그 구렁이 풀어주면 안되나요?

당 속 : (멈춰선 체 인상을 쓰고 뒤돌아 보며) 뭐라꼬? 니 지금 뭐라겠노?

김관주 :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보면서) 저...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구렁이가 멸종야생동물 1급이라 불법으로 포획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당 속 : (김관주를 향해 샷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관주 니 임마 그러는거 아니데이! 마 임마 내가 요즘 몸이 안좋아가! 몸에 좋다는 운동은 다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 먹고 있는 거 아나 모르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나! 마! 임마! 내가 느그 아버지 힘들 때 임마 밥도 다 다해드리고 임마 이놈의 자숙이

부 인 : (분노하는 당숙을 말리며) 그만하세요 가뜰이나 몸도 안좋으신데 그렇게 열 내시면.. (김관주를 째려보면서) 관주 너 그렇게 안봤는데 그러는거 아니다!

(부인이 노발대발하는 당숙을 말리며 퇴장한다. 김관주는 한숨을 쉬며 땅을 쳐다보고 조명이 어두워지며 청렴포차의 조명이 밝아진다)

#7. 청렴포차 안

bgm - 띠로링소리

김사장 : (팔짱을 낀채로) 아니 그 당숙이란 분도 너무 하는구만...

김관주 : (공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당숙 몸 안 좋으신 것도 뻔히 아는데

김사장 : (테이블을 탁치면서) 그 구렁이를 혼자서 꿀꺽 하겠다는거 아니야 지금!!(혼잣말로) 그게 남자 몸에 얼마나 좋은데..

김관주, 김성중, 문복레 : (동시에 김사장을 바라보며) 사장님!!

김사장 : (놀라서 뜨끔하며) 조크예요 조크!! 흠흠..

문복레 : (김사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뒤) 에휴.. 그보다 구렁이는 어떻게...

김관주 : (다른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은 뒤)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정말 다행이도 당숙이 그 편지를 보시고 구렁이를 풀어주실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당숙이 풀어주려 가셨을 때 이미 구렁이가 탈출에 성공해서 도망갔나네요.

문복레 : (김관주를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청년의 마음을 구렁이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갔나보네.

김성중 : (김관주의 등을 토닥이며) 가까운 이웃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청렴을 떠나서 한번쯤 눈감아줄 법도 한데.. 정말 대단한일을 하셨네요.

김관주 : (쓱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하하하.. 뭐 그렇게 까지 대단한 일이라구요... 아무튼 그 일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르바이트와 인턴 생활을 청렴하고 성실하게 임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거 같아요... 하하 진짜 보신탕은 못먹었지만 그보다 몸에 좋은 청렴보신탕 한 그릇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사장 : (감탄했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짹 짹!! 브라보!! 아 브라보!! 청렴보신탕 좋지 아주 좋아!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주방으로 가며) 그럼 청렴보신탕은 먹어봤다고 하니 그때 못 먹어본 진짜 보신탕을 제가 준비....

(김관주와 문복레는 못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시고 김성중은 김사장의 등을 잡으며 말한다.)

김성중 : 거 사람 참!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구만!

김사장 : (등을 잡혔어도 계속해서 주방으로 갈려구 하며) 끄 끄!! 이제 안주도 거의 떨어져 가잖습니까!! 제가 기동찬 안주 준비해서 올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김성중 : (안주를 슬쩍보고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주머님 이야기마저 듣고 준비하러 가는게 어떤가?

김관주 : 저도 그게 좋을거 같은데요? 하던 이야기마저 듣고 가지죠

김사장 : (잠시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우두커니 멈춰 선 뒤) 좋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이야기가
궁금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긴 하네요! (자리에 앉은 후)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한복례 : (밝게 웃으면서)저는 오늘 퇴직을 했습니다.

김사장, 김관주, 김성중 : (보통 퇴직을 했다고 말할 때는 복잡한 심경의 표정으로 말할 텐데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 한복례의 반응에 뭐라 할말이 없는 듯이...)아....

한복례 : (사람들의 반응을 본 뒤)뭐 문제있나요?

김사장, 김관주, 김성중 :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다가 김사장이 대표로 말을 한다)

김사장 : 저 보통 퇴직을 하면 아주머니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서..

한복례 :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 저는 오늘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했거든요.

김사장 : 오늘 퇴직하시고 취업을 하셨다고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거예요?

(이번엔 김사장의 말에 모처럼 동의한다는 듯이 김관주와 김성중도 고개를 끄덕인다)

한복례 : 그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가정주부로만 생활해서 혼자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워갈 지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이런 사정을 아는 남편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달콤한 제안이라 눈 한번 딱 감고 연락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배우면 안되잖아요..

김성중 : (크게 공감한다는 듯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정말 훌륭한 결정하셨네요. 저였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겁니다.

한복례 : (살짝 미소를 보이며) 난생 처음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젊은 학생들과 면접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정말 아는 것 하나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무엇이든 시켜만 달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간절함이 느껴졌다면서
합격을 시켜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 일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하고 가장 늦게까지
정리하고 퇴근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작업반장의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김사장 : (어느새 의자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훔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엔 정말이라구요...

(김관주도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인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는 듯 하다)

김성중 : 정말...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노력을 생각하면... 어휴...

한복례 : (다른사람들의 반응이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그렇게 아닌데.. 아무튼 문제는 제가 작업반장이 되고나서 부터였어요...

#8. 회사 안 (한복례 회상 씬)

bgm - 띠로링소리

(청렴포차의 조명이 어두워 지고 오른쪽 공간의 조명이 밝아진다. 잠시 후 한복례, 오대리, 김대리가 대화를 하며 걸어 들어온다)

오대리 : 아니 이모 요즘 이과장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리 : (격하게 동조한다는 듯이) 아 제말이 그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승진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모가 딱하니 작업반장의 역할을 완! 벽! 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꺼예요?

한복례 : (쓴웃음을 지으며) 너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아니잖아 확실한 정보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오대리 :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아니 이모 꼭 제 귀로 들어야만 그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요(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귓속말을 하듯이) 김대리가 봤다잔아요!! 이과장님이 사장님한테 돈봉투 드리는거요!!

김대리 : (깜짝놀라며) 아니!! 그런 일 까지 하고 있다구요? 진짜 승진에 환장했...

(김대리가 말하는 도중에 이과장이 들어온다)

이과장 : (한복례를 발견하고서는 차키를 돌리면서 걸어온 뒤) 어 아줌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오대리, 김대리는 이과장의 건방진 행동에 못마땅한 표정이지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복례 : (애써 미소지으며) 이제 점심 먹고 일하러 들어가는 중이야 이과장은 어디가는 길이야?

이과장 : (골프 치는 흥내를 내며) 아니 사장님이 또 이번 주말에 골프 라운딩 돌려 가자고 하시네? 이거 참 자꾸 나만 찾으시는게 (한복례를 스욱 깔아보면서) 조만간 승진할지 모르겠어 하하하!

한복례 : 조만간 좋은일 있겠네...

이과장 : 흠... (한복례를 지나치다 돌아서 어깨를 두드리고는) 아줌마! 사회생활은 정치야 그렇게
딱 막혀가지고 가뜩이나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더하려면 (손바닥을 아부하듯이
비비면서) 어? 알잖아 이런거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하하하하

(이과장이 퇴장한 뒤 오대리, 김대리는 참고만 있었던 울분을 터트리듯이)

오대리 : 아오!!!! 저 화상 진짜!!!!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어디 이모한테 꼬박꼬박 반말이야 반말이

김대리 :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단 것도 온갖 아부며 간부들 기념일 선물에 뒷돈 모든걸 바쳐서
올라간 거면서 아오!!!!

한복례 :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

오대리 : (한복례를 쳐다보면서) 이모!!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복례 : 왜.. 뭐가 또...

김대리 : 휴... 이모! 이모가 진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건 아는데 이과장 말도 틀린건 아니에요

오대리 :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이모도 한번 눈 딱~감고 한번만 하는거야.

한복례 :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듯이) 도대체 뭐 하자는거야..

김대리 : (너무 하다는 듯이 한숨을 크게 쉬며) 휴..... 이모도 정말 안되겠다 (오대리를 툭 치며)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지

오대리 :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그래 이게 다 이모를 위해서야.

오대리, 김대리 : (한복례의 양팔을 끼고 밖으로 나간다)

(모두 퇴장한 후 사장님이 책을 읽으면서 들어오고 한복례가 오대리와 김대리의 성화에 못 이겨
들어선다. 오대리와 김대리는 책장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본다)

한복례 : (준비해 온 돈 봉투를 뒤로 숨기고) 저 사장님...

사장님 : (한복례를 쳐다보며) 어 한반장님 여기는 무슨 일로?

한복례 : (바닥을 쳐다보며) 저 그게..... 드릴게 있어서 왔는데...

사장님 : (의아한 듯이) 드릴거라니요? 아! 저한테 올 물건이 잘못갔나요?

한복례 : (고민하는 표정으로 뒤에 숨겨 놓은 봉투를 잠시 짊 쥐었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아! 아니요 다시 보니 다른 분한테 도착한건데 제가 잘못 확인 했나보네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한복례는 황급히 퇴장하고 숨어있던 오대리와 김대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쉰 뒤 바닥을 본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 진다)

#9. 청렴포차 안

bgm - 띠로링소리

김사장 : (대단하다는 듯이)아주머님은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참으셨네 그 이과장이라는 사람 좀 찢러서 회사 좀 찢리게 하지 그러셨어요!

한복례 :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한숨을 쉬고) 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과장의 행동을 쉬쉬하고 있었죠.. 물만난 고기처럼 행동하던 이과장이 결국 제가 맡고 있던 작업반장의 업무를 하게 뒀고 제가 못마땅했던 모양인지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된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옆친데 옆친 격으로 IMF여파로 회사의 인원감축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었는데...

#10. 회사 안(아주머니 회상 씬)

bgm - 띠로링소리

(청렴포차의 조명이 어두워 지고 오른쪽 공간의 조명이 밝아진다. 잠시 후 한복례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면서 들어오고 쌓여있는 상자를 포장하려 포장지를 들 때 이과장이 등장한다)

이과장 : 어이 아줌마 물량 맞출려면 빨리빨리 포장해야지 볼 때마다 놀고 있으면 어떡해!!

한복례 :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내가 언제 놀고 있었다고..

이과장 : (언성을 높이며)그런 대답 할 시간이 있어?? 바로 포장해야지!!

(한복례가 마지못해 포장 작업을 하자 옆에서 비꼬는 듯이 이과장이 말한다)

이과장 : (혀를차며) 쯤쯤... 이렇게 일처리가 빠르지 못하니까 작업반장에서 찢리는거 아니야... 내가 작업반장하고 난 후에 실적이 얼마나 올라간줄 알아??(한복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원래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는 옷을 입어야한다고 지금 아줌마 봐봐 얼마나 잘 어울려

(한복례는 아무말 없이 포장 업무를 한다)

이과장 : (무언가 생각 난 듯이) 아! 이번에 IMF여파로 회사 인원 감축된다는 소식 들었지??

뭐 나야 걱정 없지만 아줌마 고민이 많겠어? 나이가 젊은것도 아니고 일처리가 빠른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님이라면 (손으로 목을 긁는 행동을 하며) 바로 이건데 하하하하!!

(기분이 좋은 듯 호탕하게 웃으며 이과장이 퇴장한다. 그 후 묵묵히 포장업무를 하다 정면을 바라 본 뒤 한숨을 크게 쉬고 한복례는 퇴장한다. 잠시 후 사장이 등장하고 그 뒤에 한복례와 몇몇의 사람이 등장)

사장님 : (무거운 목소리로) 소문을 들어서 아실겁니다... IMF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원감축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사장으로서 드릴말씀이 없네요..

(다들 침묵으로 일관한다)

사장님 : 이런 이야기 길게 끌어봐야 서로 좋을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연락드렸던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나가 사장과 악수하고 봉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한복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멍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본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청렴포차의 불이 밝아진다)

#11. 청렴포차 안

bgm - 띠로링소리

김성중 : 그 나간사람들이 인원감축으로 인해 해고 된 사람들...인거죠??

한복례 : 네... 저는 당연히 제가 포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엔 무언가 일이 잘못 처리된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사장 : (음흉한 눈빛으로 한복례를 바라보며) 혹시..... 아주머님도 돈봉투를..(김성중과 김관주가 한숨을 쉬려하자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한복례 : 하하.. 그런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김관주 : 오늘 퇴직하시면서 무언가 들으신건가요??

한복례 : 네... 오늘 사장님을 뵈는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IMF 인원감축 때 저를 해고 명단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은 평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록 오늘 퇴직이지만 앞으로 회사를 위해 같이 더 일해주면 안되겠냐고 재 취업 제의도 받았구요...

(이제서야 오늘이 퇴직과 동시에 취업한 날이라고 한 이유를 알았다는 듯이 다들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한복례 :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청렴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뿌듯하고 맑은 하늘을 보니 먼저 간 남편도 저를 보며 기뻐해주는거 같더라고요..

김관주 : (밝게 웃으며)거봐요 청렴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김성중 : (동조하며)그래 맞아 결국 청렴한 행동은 누구나 알게 되었다고.

김사장 : (자기잔을 마시며) 크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표정을 바꾸며) 아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드신 음식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대접..

(김사장이 말을 하며 계산지를 손에 잡자 한복례, 김성중, 김관주가 동시에 계산지에 손을 올리며)

김성중, 한복례, 김관주 : 안돼요!!!!

김사장 : (화들짝 놀라며) 아니 제가 대접한다는데 왜요!!!!

김성중, 한복례, 김관주 : (서로를 보고 밝게 웃으며) 이건 청렴에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김사장 : (얼이 빠진 표정으로) 아이고 이분들 지독하시네! 그럼 오늘 기쁜날인데 청렴을 위해 건배하고 끝내시죠!

(다들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채운 뒤 각자의 잔을 높이 든 후 김성중이 먼저 말한다)

김성중 : 우리들의!

김관주 : 청렴한!

한복례 : 오늘을!

김성중, 김관주, 한복례, 김사장 : 위하여!

(건배와 함께 잔을 들이킨 후 서로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웃는다. 잠시 후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극이 마무리 된다)

END